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2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7년 6월 4일(주일) 제1150호



지난달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7 카운트다운.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카운트다운, Desiring God 컨퍼런스 은혜 속 막 내려
1만 명 넘는 성도 운집 … 예배, 선교, 목회 열정 재확인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축제였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부터 목회자를 위한 'Desiring God 컨퍼런스'까지 이어진 행사는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행사는 막이 내렸지만 아직도 그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하는 장이었다. 등록인원만 3,400명이 넘었고,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연합집회(28일)에는 무려 6,100명이 참석했다. 거룩한 예배자를 꿈꾸는 청년들의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도 88명이나 됐다.

FA(Frontier Agency) 38명, TP(Turning Point) 12명, OSOM(Onnuri School Of Mission) 12명, 온누리M선교사와 OPMS(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11명, NGO더멋진세상 해외선교사 15명이었다. 281명은 무릎선교사, 153명이 물질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목회자를 위한 'Desiring God 컨퍼런스' 열기도 엄청났다. 지난달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 컨퍼런스에는 목회자와 신학생 3,300명이 운집했다. 성도들을 위한 저녁집회 열기는 더 뜨거웠다. 30일 저녁부흥집회가 열린 양재 사랑홀은 물론 기쁨홀, 화평홀, 온유홀까지 만석이었다.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았다. 부산 수영로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틀 동안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 '복음으로 빚어진 입'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마음과 정신과 입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자가 되라"고 했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신동운 목사(여주한강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운 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목회를 하겠다"고 했고, 이충용 목사(부천평안교회)는 "인간중심적인 설교를 지양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설교 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이소정 기자

14일까지 마리아행전 참가자 선착순 모집

'SENT 보냄 받은 자' 6월 22~24일 서빙고 본당

마리아행전 참가자를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마리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1만원).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2017 마리아행전은 'SENT 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권주은 목사(구미국제교회), 허남일 목사(한사랑교회), 박정림 사모(구미국제교회), 김윤희 교수(FWIA 아시아대표),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강의한다.

올해 마리아행전에서는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저녁 강좌도 진행한다. 22일과 23일 오후 7시 30분 '마리아 정체성'과 '마리아 영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참가자도 24일 오전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문의: 02-3215-3667, 320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6월 13일 19시 30분 양재 화평홀

2000선교본부가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아웃리치 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 유관기관, 국제부 등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번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아웃리치 준비와 진행에 대한 교육부터 아웃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해외 아웃리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문의: 02-3215-3208

/ 김영선 기자

특집대담_ 장로수련회를 앞두고 2면 **전문가 기고_**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6면 **복지_**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8면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2 Page 2

특집대담 2017 장로수련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선교다!

6월 9~10일 장로수련회 … '미션, 성공이 아닌 섬김'

이번에는 선교다. 2017 장로수련회가 '미션, 성공이 아닌 섬김(Mission, not success but service)'을 주제로 6월 9일과 10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막 오른다. 이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장로(사역 · 시무 · 명예 · 협동) 230여 명과 이재훈 담임목사와 본부장 목회자 20여 명이 선교를 듣고, 배우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진다. 장로수련회를 앞두고 온누리교회 선교를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뜻깊은 대담이 진행됐다. 김우 장로(가명, 보안국가 선교사, 이하 김), 박구병 장로(이하 박), 오성연 장로(이하 오), 윤현덕 장로(이하 윤), 최성완 장로(이하 최)가 선교에 대해 논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는 성공이 아니고 섬김
선교를 듣고, 배우고, 응원해야"

박구병 장로



"나가건 나가지 않건
모든 성도는 선교사"

오성연 장로



"성도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야"

윤현덕 장로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시작이자 목적"

최성완 장로

최: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데에는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맞습니다. 저는 1985년 하용조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이듬해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에는 선교를 잘 알지 못했고 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미국에 가서 두란노서원을 시작하면서 문서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통한 문서선교에도 집중하셨습니다. 2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서적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판으로 만들어 출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선교 비전을 실천으로 옮긴 진짜 선교사셨습니다."

윤: "선교를 지적(知的), 제도적,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란노서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한남동기도모임, 온누리 BEE아카데미, CGNTV, 선교헌금 작정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점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 어떻게 하면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김: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충격적이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애국가를 제창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입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양육한다는 것이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제 신앙을 키워준 근간이자 중요한 선교도구였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계속하면서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09년 9월 동아시아B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B국 차세대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B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유아 시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어린이선교원입니다. 5년 전부터 어린이 선교원을 활용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는 선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 "저는 5개월 동안 하용조 목사님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 목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일대일 동반자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선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른 장로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등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한번쯤 인생을 되돌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선배 선교사님께 선교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선교사는 외나무다리에서 물통을 이고 건너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나무다리를 지나면서 옆이나 아래를 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선교사가 되든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헌신하는 것이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선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최: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윤: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역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면서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따라 교회가 조직화 되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2000선교본부나 TIM(두란노해외선교회)이 조직적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화가 오히려 성도님들이 선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관심을 갖는 기회를 빼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화 될수록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작해야 아웃리치나 선교헌금 작정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순모임에 선교사님을 초대한다든지 선교사님들을 만나 기도제목을 듣는 등 선교를 위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김: "공동체 아웃리치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현장을 직접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락방과 결연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챙겨주면 더 좋겠습니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지에서 외로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와 힘을 받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도편지를 보내는 등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불을 붙이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몫입니다. 선교사가 먼저 선교지 상황, 사역과 기도제목 등을 지속적이고 발빠르게 중보기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장로님들이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에 어느 선교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께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귀감이 되어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오: "달력이 없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 교회달력 하나만 들고 가서 지나가는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도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나가는 성도가 선교사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선교를 돕는다는 개념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큰 안목으로 선교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박: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해 장로님들이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고,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선교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누리교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논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90년대는 선교베이스 구축이 중심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집중했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팀사역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사역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선교의 효율성과 시너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알리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더라도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2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도피성

신명기 19:8~10

"도피성이 생명을 보호하고 운명을 책임져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져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할수록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알려면 소득과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의무의 분배도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정의롭게 분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의 인원에 따라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제비뽑기였지만 자발적인 의사와 참여, 헌신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지파들은 원하는 땅을 허락받았고,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했던 지파들도 원하는 대로 헤브론 산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다하지 않고 더 쉽게 더 넓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배정 받은 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땅의 분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 분배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 헌신, 그리고 의무의 분배까지도 고려되었습니다.

도피성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로운 사회는 죄에 대한 엄격한 징벌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한 자비로운 용서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이라는 제도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모세오경에 이 제도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 서편에 도피성 세 개를 지정하셨고, 요단 동편에도 세 개를 지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해지는 것을 관찰하고 계셨고, 어떤 제도보다 도피성을 강하게 시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대략 32km마다 1개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약 9개 정도가 지정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길의 도로는 넓게 만들도록 했고,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한 배려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는 작업은 가나안 땅 분배의 클라이맥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땅 분배의 절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세웠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는 후기 청동기 사회입니다. 소수의 지배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 때문에 곳곳에서 폭력과 소규모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은 공권력이나 경찰력, 법으로 제어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납하고 보호해 주고

첫째, 도피성 제도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도성이 없거나 실수인 경우에는 용납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복수하는 정의를 원합니다. 의도성이 없는 실수라도 정죄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라도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는 실수에 대한 용납과 관용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를 놓고 따지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용납하고 보호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의 재판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죄를 지은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좋은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들춰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껏 무엇을 잘했는지를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하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

둘째,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자비와 긍휼이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분노조절장애라는 질병까지 생겨 난 정도입니다. 자비와 긍휼에서 나온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19장 후반부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복수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억제합니다. 여러분, 눈에 상해를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눈만 상해하려고 할까요. 코와 입까지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씀은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확히 손해본 만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급한 분노가 아니라 절제된 분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로우신 정의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진노입니다.

실수일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

셋째, 비록 실수일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했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했던 일이라고 판명되면 바로 쫓겨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마음대로 도피성을 나가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사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설화에 보면 대제사장의 어머니들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극진히 대접했다는 유대인들의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의 죄 값과 대제사장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치루고 속죄하시는 사역이 연결됩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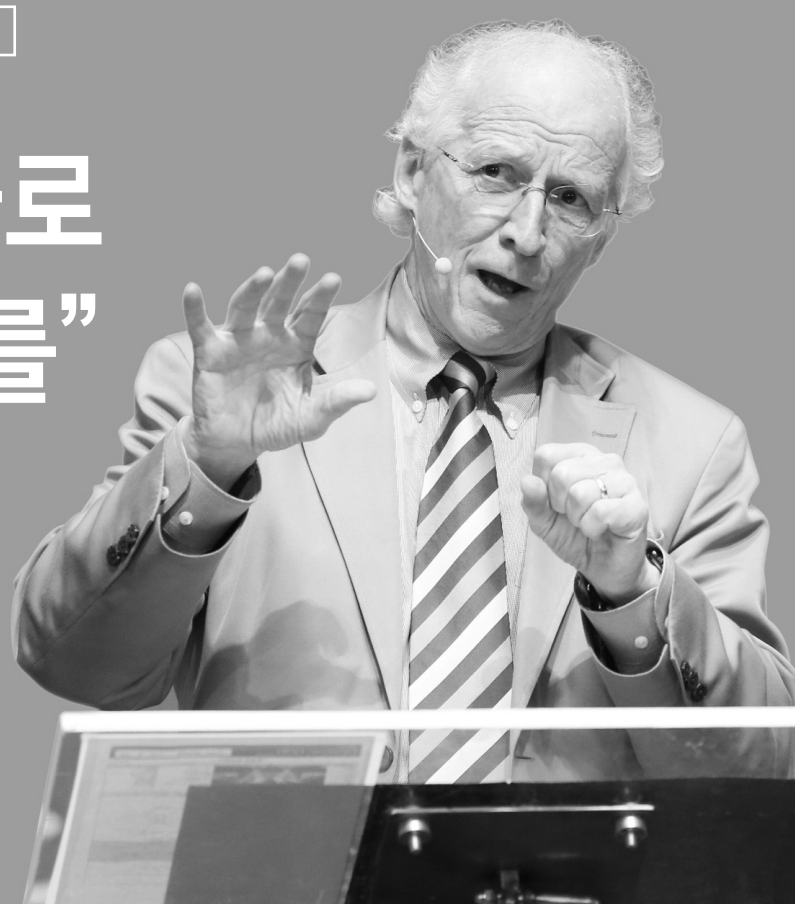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절기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속사역을 내다보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그냥 눈감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 값을 치르고 살려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대속적인 정의입니다. 값을 치르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면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이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시고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되 그 죄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13면에 계속〉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2 Page 4

'Desiring God' 컨퍼런스 | 존 파이퍼 목사, 한국 목회자들에게 고하다

"머리와 가슴과 입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흐른 지금 선교 대국으로 부흥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며 머리와 가슴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자 기독교 희락주의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가 3,300 명이 넘는 한국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묵직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새로웠다.

지난달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 'Desiring God'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존 파이퍼 목사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하여 목회자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정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단계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을 설교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목자(설교자)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진리를 알게 하려고 정신(생각)을 허락하셨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려고 마음을 주셨다.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다. 마음은 복음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좋은 것과 맞바꿨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없다.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빚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심판으로 해결되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온전히 그의 몸으로 정하사"(롬 8:3).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입히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곧 우리의 죄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사라졌다. 우리의 죄도 사라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해결됐지만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예수님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 26:28)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거듭난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거나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빌 3:8)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상태, 복음으로 마음이 빚어진 것을 의미한다.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없어졌다. 거듭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한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빌 4:4).

설교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다. 설교자는 이것을 설교해야 한다.

2단계

성도들 마음과 정신에 연료를 주입하라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생각)이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을 섬기고 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자(설교자)는 바른 진리의 연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를 태워야 한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정신이 마음을 돕지만 그 반대로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 정신을 돕는다. 정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자유할 수 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정신도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눠서 선포하면 안 된다. 복음으로 빚어진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연료를 주입하고,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의 마음과 정신에 계속 연료를 주는 것이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이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에 계속 연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열정(열심)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롬 10:1~3).

둘째,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깊이 묵상하는 것을 떼어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딤후 2:7).

셋째, 좋은 머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외식하는 자에 그칠 뿐이다(눅 12:54~57).

넷째,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서신서를 통해 13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이것을 알았더라면 달리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고전 3:16, 5:6, 6:3, 6:15).

다섯째, 예수님은 모든 교회(목회자, 장로,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엡 4:11~12).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 잘 설명할 줄 아는 것이다.

여섯째,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엡 3:4).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신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려고 마음을 주셨다.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으로 마음의 용광로에 계속 연료를 쏟아 부어야 한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정신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3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높여라

복음으로 빚어진 입은 복음으로 빚어진 설교를 의미한다.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은 마음에 있는 용광로를 불태우고,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만든다. 목회자(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의 연료를 제공해줘야 용광로가 계속 불탈 수 있다.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란 5가지 원리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첫째, 모든 것(온 우주 만물, 모든 설교, 모든 역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둘째,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예수를 위해 심어졌다. 셋째, 십자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다. 넷째, 거듭남 혹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다섯째, 성화(聖化)되고 변화되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영광이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매료될 때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변하게 된다.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과 입술로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성도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낄 때 비로소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2 Page 5



2017 예배·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예배로 오라! 열방으로 가라!

주일연합집회 6,100명 참석, 청년 88명 선교사 헌신

정말 뜨겁고, 역동적이었다. 대학청년부가 주최한 201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말이다. 등록인원만 3,400명이 넘었고, 집회 열기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청년 88명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지난달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주일연합집회에는 6,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청년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합세해 "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7 예배·선교 컨퍼런스의 핵심 메시지는 ' 예배로 오라' 와 ' 열방으로 가라' 였다. 예배로 오라는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는 권면이었고, 열방으로 가라는 메시지는 '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기쁨으로 열방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 이라는 응원이었다.

집회의 포문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열었다. ' 본질을 회복하라' 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청년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긍휼(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을 언급하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권면이 핵심이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곧 거룩한 예배자라는 의미였다.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도 청년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독려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요, 예배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령 충만이 곧 삶의 부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그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물질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었다.

독수리처럼 날아 열방을 누려라!

김춘근 교수가 무대에 올라 청년들에게 "독수리처럼 날아 열방을 누려라"고 권면했다. 그 강력하고 매력적인 제안에 청년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김 교수는"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갇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더 멀리 바라보라"고 권면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전은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야망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영광도 자신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년들에게 "야망이 아닌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종길 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용기를 선물했다. 박 목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무명의 선교사,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무명의 선교사들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독려하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목사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할 것을 당부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박 목사의 메시지에 청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존 파이퍼 목사는 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곧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장충체육관 주일연합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다.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6

전문가 칼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신앙공동체에서 리더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리더에 따라 신앙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인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순예배를 인도하거나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원 온누리교회 한건수 집사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쓴 글을 기고했다. 한 집사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편집자 주



한건수 집사
(수원 온누리교회, G.LAB)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일까? 리더라는 단어는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을 것이다. 리더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리더의 역할을 빠르게 알 수 있다.



코치같은 리더십과 예수님의 의사소통을 배워야 한다.

순을 예로 들어보자. 순하면 순장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순장이 사라진다면 매주 순예배 장소 선정부터 순예배 인도와 봉사까지 큰 공백이 생길 것이다. 순장이 없다면 온누리교회가 바라는 순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순장이 없다면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순원들의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리더가 없다는 것은 선장 없이 표류하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유사하다.

온누리교회에는 수많은 사역팀이 존재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역팀에서 리더가 세워지고 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치이다.

성경에도 코치 같은 리더가 있다. 바로 모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이루어 가셨다. 여기에서 모세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다.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돕는 리더이다. 일터에서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는 그 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이다.

신뢰 = 전문성+일관성+친밀함 / 자기중심성

코치라는 단어가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차세대 평신도 리더를 코치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코치는 차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리더들에게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리더의 좋은 역할 모델이다.

그렇다면 코치의 역할이 무엇일까? 코치(Coach)는 1500년대 마차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코치는 짐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마차였는데 최종 목적지는 승객이 원하는 곳이었다. 공동체 리더의 역할은 코치처럼 공동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다. 이것이 코치, 리더의 역할이다.

공동체가 코치를 통해서 변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코치가 구성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는 것이다. 코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년간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뢰에 대해 연구한 데이비드 마이스터 외 2명의 컨설턴트는 〈신뢰의 기술(The Trusted Advisor)〉이란 책에서 신뢰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신뢰(Trust) = (전문성(Credibility) + 일관성(Reliability) + 친밀함(Intimacy)) / 자기중심성

이 공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요소는 그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정직성을 나타내는 전문성(Credibility)이다. 두 번째 요소는 지속해서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일관성(Reliability)이다. 세 번째 요소는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친밀함(Intimacy)이다. 이 3가지 요소의 점수가 높으면 신뢰 점수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와 반대로 신뢰의 값을 낮추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며 자신의 답을 제시한다. 함께 세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는 강하게 요구한다. 리더가 구성원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자기중심성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신뢰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 경청과 발견 질문

신뢰를 높이는 손쉬운 2가지 방법이 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 코치에게 요구되는 2가지 구체적 행동양식은 '적극적 경청'과 '발견 질문'이다. 코치는 구성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잘 들으면 들을수록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구성원이 자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암기하듯 집중하며 듣는다. 둘째,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요약함으로 구성원이 스스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리더는 잘 듣고 난 후에는 일방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이어간다. 그것을 '발견 질문'이라고 부른다.

발견 질문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질문이다. 발견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부르심의 이유, 고민해오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다. 가장 좋은 발견 질문은 "왜"이다. "왜 하나님이 형제님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등이다. 구성원들이 '왜'를 생각 할 수 있도록 돕고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한다. 스스로에게 익숙해져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리더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경청을 통해 그 여인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변화되어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뛰어갔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바디매오에게도 다가가셨다.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셨지만 질문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선포한 바디매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시며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순간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리더의 의미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찾기를 바란다. 공동체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구성원들의 필요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필요를 스스로 채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있는지 묵상해보자.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7

꿈같은 통일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

힘의 논리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로

북한의 핵문제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다간 자주적인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법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황의서 장로가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의서 장로
(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반도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했다.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북쪽 땅은 동토의 땅이 되었고, 남쪽 땅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세계 경제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한국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막을 내린 이후 국제질서는 이념적 대립을 초월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재편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6.25전쟁에서는 서로 피 흘리며 싸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그칠 줄 모르는 경제성장은 그동안 국제질서를 지배해 온 미국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을 일으켜 세우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이 구상했던 대동아권의 부활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미동맹만으로 충분한데 한·미·일 동맹 속으로 들어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작전에 소리 없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 삼아 왔는데 새롭게 형성된 한·미·일 동맹 때문에 중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와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족자결권과 북핵문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 수상 콜은 '민족자결권'과 '유럽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시켰다. 동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은 독일 통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6자 회담을 제안했고 연합국들은 이를 찬성했다. 6자 회담에서 소련, 동독,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은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오직 미국과 서독만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었다. 서독 수상 콜은 6자 회담이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련은 통일 조건으로 독일이 중립국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했지만 콜 수상은 그러한 주문은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했다.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하게 되었다.

민족자결권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은 한국 통일의 모델이 되었다. 전세계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통일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꿈과 희망은 잠시 동안이었다.



1992년부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점점 확대되면서 인류의 평화 문제로 부각되었다. 북핵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것은 미국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핵문제와 민족문제를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민족자결권의 문제는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에 가려지게 되었다. 통일을 염두에 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방문,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모든 남북교류가 장벽에 부딪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하여 경제협력과 같은 작은 통일을 먼저 실현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구상 역시 빛을 보지 못하였다. 독일 통일은 더 이상 한국 통일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수 있는 민족자결권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이해관계는 점점 북핵문제의 그늘 속에 가려지고 있다.

북핵문제와 통일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북핵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중국과 함께 풀어갈 문제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북핵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하여 미국과 대립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중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을 파악한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은 당사자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북핵문제는 오직 통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챙겼다. 한반도에 대한 정보수집에서 한국보다 앞서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작전권 아래 있다. 미군의 동의를 얻은 일본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동의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특수부대를 준비하고 작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갑자기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토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5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동족간의 화해를 통하여 전쟁의 상처를 씻을 수 있었지만 동맹 간의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대립하게 된다면 한국 혼자 전쟁을 종식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쉽게 발생할 수 없지만 동맹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면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한국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에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과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국제 환경이 변했다.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과 교류하고 있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중국과도 화해하고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남한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정권연장의 수단이 되거나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북한에게 많이 있지만 남한이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남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의 20배 수준이고, 인구수가 2배이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은 40배가 넘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에 대한 책임은 남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피해서도 안 되고, 다른 국가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책임지는 국가로 자신의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의 자세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로 통일을 설계해야 한다. 통일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열어가는 미래의 세계이다. 콜 수상은 동독에 37만 명의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독일 통일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자유세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남한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갈 불씨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게 유익하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나님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야 한다. 통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밀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8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은 '사랑'

서빙고 여성사역, 하나로 청소년들과 함께 요리교실

"한 그릇 더 먹어~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이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청소년들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다. 금세 표정이 환해지더니 배시시 웃는다.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로 청소년들과 함께 요리교실을 연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엄청나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듯이 청소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청소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허기진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곤궁한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rui.org



하나로 청소년들이 즐겁게 요리를 만들고 있다.

센터 3층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고기 볶는 냄새로 군침이 절로 고였다.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과 하나로 청소년들이 음식 만들기 삼매경에 빠져 있다.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 사랑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음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단순히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이 음식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준비하고, 만들고, 먹는다. 어떻게 하면 쉽고,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자연스레 요리비법이 전수 되었다.

하나같이 행복해보였다. 함께 요리하는 봉사자들과 청소년들의 표정이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은 하나로 청소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요리교실팀원들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6년째 팀원 교체 없이 호흡을 맞춰 오고 있다. 이정아, 김안나, 김충열, 박영미, 김유하, 이명수, 김지연 성도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로 청소년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하나로 청소년들을 생각만 해도 눈과 코가 빨개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역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다.

"하나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만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과 하나로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요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요리에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어른들의 메시지와 "관심 가져주시고 한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청소년들의 화답이 숨어 있다.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요리시간이 시작되었다.

오늘 요리할 음식은 햄버거 스테이크다. 청소년들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인지라 눈빛이 반짝였다. 각자 역할을 나누고 재료손질에 들어갔다. 채소를 다듬는 손길은 어색할지 몰라도 요리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일류 요리사 못지않았다. 어김없이 칭찬세례가 이어졌다.

"이야~ 잘하는데?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긴장했던 청소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로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자존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명 하나로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되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잘게 다진 채소와 다진 고기를 치댔다. 평화(가명)가 고기 치대는 솜씨가 수준급이었다. 전문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에서 탄성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평화도 기분이 무척 좋아보였다.

"선생님, 저 드디어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평화(가명)는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했다. 티 없이 맑을 것 같은 평화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다. 통통한 모습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인지 평화는 친구들을 더 세심하게 챙겼다. 평화에게는 이날이 적성도 찾고, 친구들과도 하나 되는 최고의 하루였다.

진정한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제 요리 막바지다. 열심히 치댄 고기에 치즈를 넣고 팬에 구웠다. 요리에 집중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로 청소년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지 등 세심하게 묻고 또 물었다. 엄마 같은 따뜻함에 진실함까지 녹아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청소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어른들의 진솔한 사랑에 청소년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 최고의 만찬까지 차려졌다. 함께 만든 음식을 베어 문 봉사자들과 청소년들보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보였다. 4일 전 하나로꿈학교(위탁형 대안학교)에 온 하민(가명)이에게도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민이가 하나로꿈학교에 올 때 외부활동과 점심식사를 안하는 조건으로 왔는데 오늘 점심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오늘 겨우 설득해서 요리교실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밥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기적입니다!"

하민이도 남모를 아픔이 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우울증이 심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하민이가 요리교실에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고 밥을 먹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민이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밝고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봤어요. 진정한 사랑이 하민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해요."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이 허기진 배만 채워 준 것이 아니다. 곤궁한 마음까지 사랑으로 채워줬다. 그랬더니 마음 아픈 청소년들이 살아났다. 생기를 되찾았다.

서빙고 여성사역 요리교실팀은 하나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모임도 이어가고 있다.

"하나로 청소년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청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와 후원이 절실해요"

하나로에는 위기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이 자립할 힘을 키워주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로의 역할이다. 하나로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이다. 2002년 11월 개원했다. 위기청소년들에게 중장기보호 및 상담, 복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자 비전이다.

하나로는 크게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남자청소년 중장기쉼터, 하나로꿈학교, 바리스타자격 취득과정, 어르신 한글반, 꿈의집 지역아동센터가 그것이다.

남자청소년 중장기쉼터는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들과 탈학교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다. 기초생활관리, 자립지원, 학업지원, 정서적 지지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 10명에 보통 8명~1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하나로꿈학교는 검정고시 대안교육과 경기도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검정고시 대안교육은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검정고시 합격률이 95%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교육 과정은 정원 15명으로 학업중단 위기 혹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교과 교육, 진로탐색, 특기교육 등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꿈을 되찾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리스타자격 취득과정은 쉼터 입소 청소년과 하나로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지원 특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 한글반은 한글을 모르는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꿈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 및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나로에서는 매주 수요일 청소년들을 위한 채플을 드리고 있고, 격주로 하나로 입소 청소년들과 졸업생들을 위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로가 몇 년 전부터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 시설이 낡아 누수와 누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5년 만에 재건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

문의: 031-399-799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5-93705 (예금주: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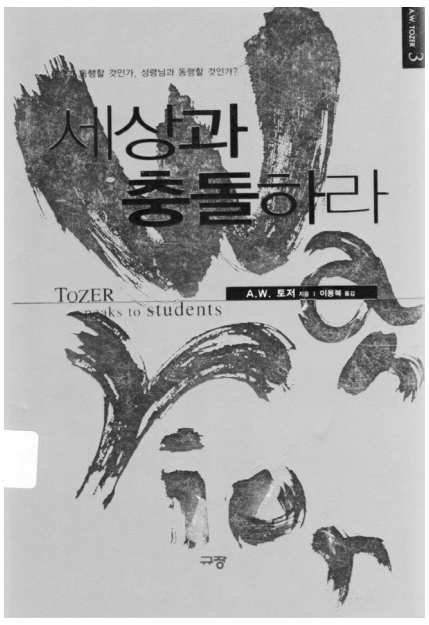
하나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음세대 리더십으로 성장하도록
- 재건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9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추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세상과 충돌하라〉
A.W. 토저 저 | 규장 | 12,000원

〈세상과 충돌하라〉는 토저 목사가 1950년대 휘튼대학 학생들에게 한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다. 토저 목사(1897년~1963년)는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며,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인물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이다.

필자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돌이키면 살아나리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복되신 성령님은 세상의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시대의 변질된 기독교라고 나무라신다. 세속에 부합하며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라"고 권면하신다.

진정한 믿음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이다. 이 말은 사회에 대한 반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많은 위험과 재앙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실 것임을 천명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과감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돌이킬 수 없다. 스스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분쇄할 수 있다. 성령의 힘을 받아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힘을 주시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운다'든지 혹은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극대화하라'는 주장은 성경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고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만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향수에 젖어 살 수 있다.

위기극복 방법 '다섯 가지 서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저 목사는 다섯 가지 서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고 제안했다.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험담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섯 가지 서원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돌이킴이 이뤘으면 좋겠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올해 초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외치며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눈물을 뿌렸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표어를 잊진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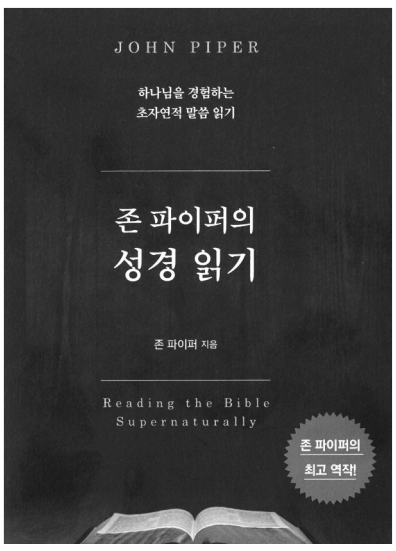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란다.



유수열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초자연적 성경 읽기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
존 파이퍼 저 | 두란노 | 25,000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존파이퍼 목사가 한국 교회,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존 파이퍼 목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에 열광할까. 도대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선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존 파이퍼 목사는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단언했다. 성경 한 장 한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다. 존 파이퍼 목사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연적 성경 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가 제안하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는 자연적 성경 읽기를 뛰어 넘는 것이다.

그가 22살 때 몸소 체험한 방식이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초자연적 성경 읽기 방법을 이어오고 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진리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자연적 성경읽기는 'APTAT'라는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정하라(Admit)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2단계-기도하라(Pray)

어떤 형태의 도움이 되었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3단계-신뢰하라(Trust)

스스로의 상황에 들어맞는 하나님의 구체적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가령 설교하기 앞서 다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마 10:20).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4단계-행동하라(Act)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되 하나님이 행하셔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한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5단계-감사하라(Th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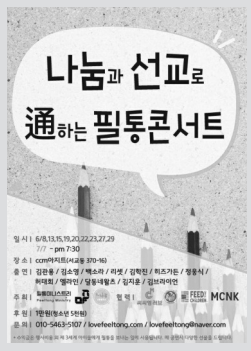
어떤 일이 이루어지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가 제안한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다. 지금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당신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기독 공연'

7월 7일까지 필통콘서트

젊음과 문화의 거리 홍대가 '기독 공연'으로 물든다. 필통미니스트리(제3세계 어린이에게 필통과 학용품으로 후원), 마주공동체(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찬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 더나눔사랑플러스(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 도움과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단체)가 '나눔과 선교로 통(通)하는 필통콘서트'를 개최한다.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는 필통콘서트에는 김관용, 김소영, 리셋, 엘라인, 김지훈, 김브라이언 등 찬양사역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 수익금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필통을 보내는 일에 사용된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상에 기독교 예배 문화의 꽃을 피우자'를 주제로 2017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개최됐고, 25일에는 제19회 양화진음악회 장필순 콘서트가 열렸다.

장소: CCM아지트(서교동 370-16)
문의: 010-5463-5107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10



‘어!벤처스’ 나선다

창업 3년 미만 기업들에게 전 · 현 CEO들이 멘토링

온누리교회 크리스천 CEO 포럼이 주관하고 사회선교부가 후원하는 2017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6월 19일 오후 7시 선릉역 롯데엑셀러레이터 15층에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에는 지난해 참가팀과 멘토들이 참석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s://goo.gl/VxstMw)에서 하면 된다.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국내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창업 3년 미만 청년벤처(팀에서 1명은 기독교인)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등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해외 데모데이 출전권(헤브론스타 지원), 크리스천 CEO 포럼 및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멤버십, 각종 네트워킹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532-111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복지재단 자원봉사자 모집

요양보호사, ‘웃자단’ 봉사자 등

온누리복지재단에서 귀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온누리요양센터는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를 기다리고 있다. 입소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성도가 대상이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기계목욕 및 책친구와 산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계목욕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와상 어르신께 책을 읽어드리는 책친구와 산책은 매주 1시간 봉사한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1월까지 활동하는 ‘웃자단’ 봉사자를 모집한다. ‘웃자단’은 우울 및 자살 위험 어르신들을 돕는 전문봉사단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경로식당 봉사자를 모집한다.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를 하게 된다.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봉사한다. 요일은 선택할 수 있다.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성경읽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봉사하면 된다.

문의:
온누리요양센터 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02-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02-985-3609

목요어머니기도회 세미나 개최

6월 8일~7월 13일까지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빙고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노희태 목사, 곽상학 목사, 송인수 대표, 김지연 집사가 강의한다. 차세대 자녀를 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5

제5회 온누리열방 탁구대회 개최

6일 온누리 기독문화전시관

양재 2000선교 스포츠선교팀이 ‘제5회 온누리열방탁구대회’를 개최한다. 6월 6일 오전 9시 서빙고 근린공원에 위치한 온누리 기독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개인 1만 원, 단체는 4만 원이다. 회비 수익금은 전액 이주민 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온누리열방탁구대회는 오전에는 수준별 개인 단식, 오후에는 공동체별 4인 단체전이 진행된다. 탁구 레슨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서빙고, 양재, 인천, 부천, 평택, 안산과 화성M센터, 군포하나로 등 120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의: 010-3772-3686

75기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75기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80명 선착순이다. 이번 샤이닝 글로리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파주솔수양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오늘(4일) 서빙고와 양재 1층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744

“아프리카 복음화 위한 방주될 것”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 교회 건축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 ‘Adepr교회’를 건축했다.

지난달 28일에는 Adepr교회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김창옥 사무총장, 아프리카 동부교단 관계자, 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동부교단 한 관계자는 “먼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준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창옥 NGO 더멋진세상 사무총장은 “Adepr교회가 응호망과 주민들의 복음화를 뛰어 넘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방주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벽화

CGNTV, 아트비전 서빙고동에 벽화거리 조성

CGNTV와 아트비전이 서빙고동에 벽화거리를 조성해줬다. 보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벽화다. 교회와 기관이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소통하는 좋은 선례도 남겼다. 지난 30일 CGNTV와 아트비전이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높이 187cm, 길이 56m 외벽에 벽화를 그렸다. CGNTV 직원과 아트비전 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그린 벽화에는 주변이 깨끗해지고 따뜻한 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벽화에는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있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Love Sonata 동경 기 · 도 · 제 · 목

■6월 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6월 6일(화) 일본 수도 동경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6월 7일(수) 10주년 대회가 일본 선교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6월 8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진, 출연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6월 9일(금)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도록
■6월 10일(토) 봉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6월 11일(주일)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는 러브소나타가 될 수 있도록

러브소나타 동경 참가자 추가 모집 A팀 40명(7월 24일 ~ 27일, 109만원) 문의: 02-749-1149

제66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17~18일, Acts29 비전빌리지

제66회 성령수련회가 ‘성령의 권능’을 주제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거나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등을 주제로 박성은 목사(서빙고)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문의: 서빙고 010-7120-5221
양재 010-8955-3610

장례버스 봉사자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25인승 장례버스를 운전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천국환송예배, 화장예배 등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운전하면 된다. 사례는 장례 건별로 지급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등록교인증명서(목회행정실 발급),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다. 문의: 02-3215-3234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11

▌샤이닝 글로리 수료자 간증



긴 터널 끝에서 만난 하나님

/ 박은경 자매(SNS공동체)

카이로스(Kairos). 내가 샤이닝 글로리에 지원했던 2014년 겨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다. 당시 나는 방전된 배터리 같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모두 쓰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샤이닝 글로리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만 같은 묘한 느낌에 사로 잡혀 바로 신청하고 샤이닝 글로리에 입소했다.

편안하고 조용히 프로그램을 소화해 나가고 있었다. 벼락 같이 십자가가 다가왔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제야 알게 됐다. 내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십자가가 무거운 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여태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무게만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게 해주세요."

샤이닝 글로리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1:3~4).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은경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슬프고 아팠던 인생의 1막이 다 끝났다. 다 지나갔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눈물을 닦을 테니 이젠 울지 말고 멋지게 살려무나. 예수님이 살았을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라. 널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서로 안고 울었다. 그렇게 2014년 겨울을 끝으로 나와 가족들은 몹시 추웠던 인생의 계절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누리며 살고 있다.

길고 긴 터널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 1막을 종결 시켜주셨다. 그리고 다음 인생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샤이닝 글로리다. 헌신적으로 섬겨준 스태프들에게도 감사하다. 기회가 된다면 샤이닝 글로리에 꼭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

▌양천공동체 순모·권찰 리트릿 후기



감사편지 그리고 감동

/ 이혜은 권찰(양천공동체)

나는 권찰로 섬긴지 6년째다. 올해 초 순을 개편할 때 권찰을 내려놓고 순원으로 순예배에 참석하고 싶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양천구에서 멀기도 하고 권찰로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개편된 순의 순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순장이 되니 권찰로 섬겨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권찰로 섬기게 되었다. 우리 순장님은 지난번 순의 예비 순장님으로 섬겼고, 나는 권찰이었다.

4월 말 순예배 광고 시간에 순장님께서 5월 13일 새벽 6시 순모와 권찰 리트릿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꼭 참석해달라는 당부하셨다.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순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오후 11시가 넘는다. 그래서 나에게 토요일 오전은 쉬는 시간이다. 그런데 새벽 6시라니. 그러면 나는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었다. 그래도 순장님의 반복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했다.

새벽 6시경에 모임장소에 도착했다. 장로님들과 다락방장님들이 흰색 상의에 자주색 스카프를 매고 맞이하고 계셨다. 1층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자리에 이름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다. 다락방별로 모인 순모와 권찰들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했다. 그런데 공동체 총무님께서 한 사람씩 무대로 나오게 하셨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순의 순장님이 순모와 권찰들에게 쓴 감사 편지를 읽어주는 순서였다. 맨 처음 편지는 목사님이 읽어주셨다. 그 다음에는 감사편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차례의 순모나 권찰에게 순장님의 글을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고 앞에 나왔던 권찰님이 우리 순장님의 글을 읽어주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혜은아 그동안 수고했지. 내가 네 수고를 다 알고 있단다. 고맙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참석한 60명의 순모와 권찰들이 감사편지를 받았다. 정말 큰 감동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심한 곳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새벽부터 나와서 자리를 세팅하고 준비해주신 공동체 리더십들께도 감사드린다. 꼭 참석해달라고 권유해주신 순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내가 받은 귀한 사랑을 다시 순으로 흘러 보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를 섬기며



끝나지 않는 천국잔치

/ 김의경 집사(미얀마예배)

미얀마는 면적이 우리나라 보다 여섯 배 이상 넓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 내가 본 미얀마 사람들은 평화롭고, 온순하며, 헌신적이다. 그들은 음악과 축구를 사랑한다. 특히 한류를 좋아한다. 몇 년 전 미얀마에 갔을 때 한류열풍이 대단했다. 미얀마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몰려든다고 한다.

우리 부부가 처음 안산M센터를 섬기러 갔을 때는 미얀마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적어 열방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다. 지금은 독립해서 매주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애를 느낀다. 그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반갑고 기쁘다. 정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미얀마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직장을 잃거나 아플 때 혹은 외롭거나 어려울 때 가족처럼 같이 울어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하면 모든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전도가 그렇다.

미얀마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어 지난달에 부천 온누리교회 사랑공동체와 안산M센터가 함께 맞춤전도집회를 열었다. 참석자 100명이 목표였는데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했다. 집회장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지를 눈물겹도록 체험했다.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집회 당일까지 3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준비한 전도집회는 천국잔치가 따로 없었다. 겸손한 섬김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서로의 나라를 존경하는 마음도 나눴고, 열심히 준비한 공연으로 그들을 위로했다. 스킷드라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전도집회 참석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수많은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다음 날에는 친선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아주 특별한 결혼식도 있었다. 지금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에서는 천국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그 깨달음이

/ 주현경 선교사(대전 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를 수료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지혜가 생겼다. 모두 하가훈에서 진행된 피플퍼즐, 가계도, 아내의 역할, 편지쓰기 프로그램 덕분이다.

피플퍼즐을 통해 나의 성향과 남편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리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상처투성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피플퍼즐을 통해 서로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더니 자존감이 높아졌다.

가계도를 통해서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남편의 가계도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이해가 됐다. 남편의 한없는 눈물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가 연약함이 보일 때 이해하고 기다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아내의 역할을 통해 지혜로운 여성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잠언에 있는 지혜로운 아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곤 했다. 그 이유는 심신이 연약한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씀 그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더 싫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 말씀을 꼭 지켜 순종하고 싶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이다.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회개가 터져 나왔다. 남편 탓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용하셨다.

지금 내 모습은 하가훈에 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가훈을 통해 깊이 회개했다. 나의 부족함을 성숙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다. 그 계획이 이뤄지는 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깨달음이 내 안의 미움과 분노를 사라지게 했다. 사랑스럽고 든든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12

권사칼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홍주희 권사
(강동B공동체)

고등학교 시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을 향해 있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전해졌다. 나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미약하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한국어 선교학교가 개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마음에 "꼭 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소원이 생겼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서둘러서 강좌 신청을 했다. QT를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어 선교학교 개강 날만 기다렸다. 그때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이 와 닿았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한국어선교에 쓰겠다"는 음성처럼 들렸다.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한국어 선교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첫 강의를 들을 때는 한국어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국어 선교학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신감이 사라져갔다. 어려운 문법이 너무 많았다. 한국어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음성도 잊어 버렸다. 나의 현재 상태와 상황을 바라보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다.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몇 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나는 한국어 선교학교 9주 과정을 마치면 곧장 한국어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국어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뜨거웠던 마음이 한국어선교 사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 관련 교재를 기본으로 가르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도감을 되찾았다.

요즘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할 손길이 부족하다. 한국어 선교학교는 한국어로 선교하는 사역의 문을 여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내용들이 씨앗이 되고 열매 맺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을 통해 오는 이주민 여성들, 부모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자 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어 선교학교가 아름다운 사역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소서!"

청년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이종명 대표MC
(허브공동체)

나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오스트리아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정부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때 나는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무작정 오스트리아를 떠나야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했다. 나는 한국 대학교의 문화에 휩싸였고 좋지 않은 문화도 경험했다.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 내 안에 커다란 허무함이 찾아왔다. 내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온누리교회 허브공동체를 만나게 됐다. 허브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완악했던 마음이 어릴 적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워십팀과 순장으로 섬기게 됐다. 모든 섬김의 자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자리였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명아 대표MC로 섬기지 않을래?"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생각났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 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의 요청에 순종하고 대표MC로 섬기기 시작했다. 전도집회, 리더십 블레싱, 아웃리치, 철야기도회 등 다양한 공동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같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부족하면 채우시고, 교만하려고 하면 낮추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전도집회를 기획해서 진행하면 되고, 대학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면 캠퍼스사역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역하느라 힘들지? 고생하네, 조금만 참아"라고 말한다. 물론 교회사역과 일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공동체 수련회를 기획할 때는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3일을 밤을 샌 적도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시간관리, 재정관리, 영성관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신앙에세이

예수님을 깨워라!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강점은 자랑하고 싶고 약점은 숨기고 싶은 것이 본성이다. 하지만 때로는 강점이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을 낳는 것이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생들을 만나며 지낸다. 대학생들과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만 자랑하고 약점은 숨기는데 급급하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약점을 조금만 건드려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결국 그 약점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갈릴리 호숫가 해프닝은 바로 이런 지혜를 보여준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날이 저물자 지친 몸을 이끌고 배에 올라탔다. 배에 올라타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고 주무셨다. 그때 잠잠하던 호수에 파도가 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거친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뭍에서 일하던 도마나 유다 같은 제자들은 겁에 질려 배에 물이 찬다고 소리쳤을 것이다. 그때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자신감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상황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깨웠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겠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답은 거기에 없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방법대로, 자신의 강점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순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생각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교회와 우리가 겸손히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최성민 목사
(허브 대학부)

20170604-1150-_2012528 -90216 17. 6. 2. 9:53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도피성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될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 6:17~18).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느 민족 사람에게도 열려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늘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치외법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대사관이 있는데 그 대사관은 그 나라 법이 함부로 지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보호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죽임당할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피성이 생명을 보호하고 운명을 책임져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져주십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고 도망가더라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성경곳곳에 안내문이 적혀있습니다.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시대 도피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실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공급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나귀만도 못한 '발람'

성경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동물과 인간의 궁극적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동물에게는 '하늘나라'라는 관념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다음세상 즉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은 오직 땅의 일만을 위해서 살지 종교나 내세관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땅에 살지만 죽은 후에 갈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 '땅에 속한 존재'라면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에요. 결국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성경은 짐승을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에도 멸망할 짐승과 동등한 존재가 있어요.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벧후 2:13). 짐승 같은 사람들의 인생 최종목표는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인생 뭐 있어? 낮이나 밤이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둘째,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요(벧후 2:14). 인생의 목표가 즐기는 것이니 육신적으로 즐길만한 것을 찾아 헤매며 사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요(벧후 2:14, 18). 주변의 선량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쾌락 추구에 끌어들여 공범이 되게 하는 물귀신 작전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짐승 같은 사람들의 대표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던 당시 모압 근처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에요.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서 모압 땅으로 들어오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하지 못하겠다는 기특한 말을 하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비법을 모압 왕에게 일러주고 말아요(계 2:14). 발람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모압 왕의 편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렘브란트(Rembrandt)가 그린 '발람과 나귀(Balaam and the Ass)'.

하나님은 발람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가는 발람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칼을 들고 막아 선 여호와의 천사를 본 나귀가 길이 아닌 밭으로 들어갔고, 담에 발람의 발을 비벼 상하게 했어요. 좁은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진 나귀는 결국 천사 앞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이에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세 번 때려요.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응수해요.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립니까?"(민 22:28). 발람이 나귀에게 따지듯 말해요. "네가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또 말해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심에 눈이 먼 발람은 끝까지 욕망의 길을 걸어가요. 성경은 이런 발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각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유 1:10)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 당하는(유 1:11) 어처구니없는 인생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능에만 충실해서 육체의 쾌락만 좇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해 땅에서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참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타고 다녔던 나귀만도 못해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한 발람은 우리 모두의 반면교사(反面教師)가 아닐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1150호 2017060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6. 2. 오후 9:39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 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벡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 (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CMN BEE팀 국내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24일~27일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월령교회
대상: 의료, 미용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김선아(010-6773-2136)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정: 인도네시아 빨렘방(8월 12일~17일)
스리랑카 해튼(8월 12일~18일)
모집: 의사, 약사, 간호사, 미용사 등
비용: 인도네시아 140만원, 스리랑카 160만원
문의: 우승엽(010-4230-1474)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 교사 봉사자 모집
대상: 다문화 및 외국인 초중등생
모집: 한국어회화 초급/중급, 초등 국어지도
조건: 6개월, 주1~2회 봉사가능자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국악찬양팀 팀원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모임: 매주 목 오후 6시~9시 반(서빙고)
문의: 010-6281-9121

어린이 창조과학 탐사 모집
대상: 초등3~6학년(부모동반 가능)
일시: 7월 1일(토) 오전 8:00~오후6:00
장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남한산성 묵상의 집(교회집결)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3869-7785)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호수요양병원 4층

한국이슬람연구소 초급 아랍어강좌
일시:6월 15일~8월 17일(매주 목 오후 7:00~9:00)
장소: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의동
회비: 20만원
문의: 02-570-7563

QT세미나 – QT와 관계회복
일시: 6월 11일 (주일), 오후 2시~ 4시
장소: 양재 한동홀
강사: Matt Rawlins
문의: QT세미나 팀장(010-2852-5468)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선교중보)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영아부예배 오전 11:30 본관2층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2층 볼룸C홀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 대학부 오후2:00 (1층115호) / 청년부 오후2:00 (1층113호) 차세대예배 11:30 - 송도 컨벤시아 1층 영아부 104호 / 유치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예배 109호 (오후 2:00)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30분 / 중국어 예배 11:30 몽골어 예배 13:00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150호 2017060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6. 2. 오후 9:39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염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영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종호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렘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성은A 박성은B 박시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배행삼 변대섭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바울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은영 김재승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헌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데렉다라 로즈베릿슨
마주마누룽 바랏라실리 백영미 손 숙
싱루아마놉 안희진 이창호 유네트케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최성필 차제이미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고은아 구민선
기호진 김기락 김기태 김덕기
김민석 김민영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찬숙 김태환 노태규 문대성
김희연 나지혜 노태규 문대성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신광 박양원 박은미
박은빛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원 박진혜 방세미 백영미
백종갑 서수민 서영희 서종옥
서 철 송지은 신경훈 신대군
신대종 신유수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알렌태평혜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유 한 윤기철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진영
윤형립 이경선 이다솔 이루주
이미령 이선영 이성광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지훈 장동원 장미숙 장유미
장윤진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환 정진아 조요구 조상훈
조성환 추대식 최규종 최대흥
최선재 최성규 최영빈 최재윤
최정현 최종현 최현웅 캐럼라요셉
하성희 하승연 하청훈 한성훈
허륜호 허영은 현신원 홍세나
홍순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재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유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아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형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욱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묵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정호
김정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학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동현 박대호
박덕현 박봉래 박상송 박병균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수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신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은섭 정운오
정지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희동
조성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욱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영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허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경일 최영재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영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김지희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주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지
안은영 안은영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서재범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나시야마 신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 현 유현목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영민 최카메다 마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오광 권희경
금동섭 김도일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대원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염영기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상
이경호 이상훈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이현석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대웅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개자예이모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욱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탐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열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윤경선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지은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성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크레아시 케구
하보라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icbou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분호 장민용
장우진 정길안 조규배 조록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염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이남수, 장문욱(양지 비전빌리지 장로, 협력목사)의 아들 이주성(온누리교회)
김종련, 김상춘 (온누리교회 성도, 권사)의 딸 김민정(사도교회)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이철교(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의 아들 이은우(여의도순복음교회)
정명성, 김영선(오사카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집사)의 딸 정애리(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조혜민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바이올린 레슨 및 노트북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길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웃자, 웃자! '웃자단' 봉사자 모집
'웃자단' : 우울 및 자살 위험 어르신들의 정서를 지원하는 전문봉사단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열정 있는 어르신
활동기간: 5월~11월
활동장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일부활동은 자택에서 가능)
문의: 장수진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광고

5/25(목) 특별한초대 서경화 성도 부군상 고 김정휘
5/25(목) 분당A 윤지현 성도 시모상 고 박수
5/26(금) 이수 안승지 성도 부친상 고 안원용
5/26(금) 서산 온누리교회 박병진 성도 모친상 고 김경임
5/28(주일) S브릿지 김정섭 성도 모친상 고 김주임
5/28(주일) 안양평촌 이상민 성도 부친상 고 이복응
5/28(주일) 송파 김인선 장로 모친상 고 박현규
5/29(월) 관악금천 백성녀 성도 부친상 고 백원기
5/30(화) 관악금천 김귀남 선교사 부친상 고 김형석
5/30(화) 분당A 남기철 집사 빙모상 고 김정숙
5/31(수) 서초A 강정인 성도 부군상 고 이동화
5/31(수) 북누리 조경자 성도 모친상 고 윤희순

평택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자격: 세례교인,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인근 거주자, 1종 보통 운전 가능자(35세 미만)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온누리교회 양식)
접수: 6월 25일까지 crusadelim@onnuri.org
문의: 임태길 간사(031-651-9680)

주일 7부예배 콰이어모집
시간: 매주 주일 pm7:30~10:30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1150호 2017060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6. 2. 오후 9:39 페이지 3





선교사 자녀(MK)들의 비전을 깨운 특별상영회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부모님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성호(필리핀 MK)

선교지에서의 삶이 힘든 점이 많은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라면 못할 일을 하신 것을 보며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예빈(중국 MK)



홀사모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한 특별상영회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간 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런 원망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의숙 사모

목사님 소천하시고 목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 힘들어하며 제게 맡겨진 시각장애인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영혼들을 더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안현자 사모(안산실로암교회 목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미자립교회), 새사람사역팀(소망교도소), 누리사랑부, 제주여전도연합회, 직장인성경공부모임 등
여러 사역 단체들과 함께 서서평 특별상영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의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깨우고 **서서평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